

단백뇨를 주소로 내원한 29세 남자

증례발표: 계명의대 진규복

임상토의: 연세의대 한동철

병리토의: 계명의대 최미선

29세 남자 환자가 단백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20년 전부터 운동 등 체온이 오르는 상황에서 악화되는 손, 발의 말단 통증과 열감, 무한증을 주소로 수 차례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어 간헐적으로 진통제 등을 투약하였다. 내원 7년 전 정기 검진에서 처음 단백뇨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2년 전부터 손, 발의 말단통증이 악화되었다. 내원 3개월 전에는 흉통이 발생하여 안정성 협심증으로 투약하였다.

진찰소견으로 활력 징후는 혈압 120/80 mmHg, 맥박수 76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9°C였다.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결막은 창백하지 않고, 공막에 황달은 없었으며, 혀는 약간 말라 있었다. 우측 둔부에 검붉은 색의 반점이 관찰되었으며 통증은 없었다. 호흡음은 정상이었고,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양측 하지에 함요 부종은 관찰되지 않았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2.7 g/dL, 적혈구 용적 35.7%, 백혈구 6,190/mm³, 혈소판 248,000/mm³이었으며, 혈청 전해질 검사에서 나트륨 143 mEq/L, 칼륨 4.7 mEq/L, 칼슘 9.3 mg/dL, 인 4.1 mg/dL 이었다. 혈청 생화학적 검사에서 총단백 7.2 g/dL, 알부민 3.9 g/dL, 혈중 요소 17 mg/dL, 혈청 크레아티닌 1.3 mg/dL, 총 콜레스테롤 177 mg/dL 이었다. 요 검사에서 요단백이 2+, 적혈구 (-), 백혈구 (-), 24시간 소변검사상 크레아티닌 청소율 48.9 mL/min/1.73, 단백뇨 1.3 g 관찰되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은 음성, 항체는 양성이었고, HCV, HIV 항체 음성이었다. ANA 음성, C3, C4 정상이었다. 단순 흉부 촬영에서 특이 병변은 없었으며 심전도 및 심초음파에서 좌심실비대 이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단백뇨 및 신기능감소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신장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